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1선거구 김혜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소개한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출산휴가로 인해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본 의원이 소개한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선)구간은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8호선 종점역인 암사역(강동구 암사동)을 시작으로 한강 하부를 통과하여 구리시 구간을 지나 남양주시 별내읍까지 12.906 km에 구리역(경의중앙선), 별내역(경춘선) 등 환승정거장 2개

소를 포함한 정거장 6개소가 설치되며 6월 개통 예정입니다.

별내선은 2015년부터 계획돼서 2018년에 착공을 했으며 별내선 연장 시에는 그 혼잡도가 170%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음에도 서울시는 2022년 11월부터 혼잡도 개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에 8호선 연장 사업 수요 예측의 주체가 경기도였고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증가할 인구 예측도 10만 명이나 과소 예측했고 기존 본선의 혼잡도 증가 분석 없이 연장 구간 중 경기도 역별 수요만 분석하여 서울시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호선의 혼잡도는 이미 136%를 상회하고 있으며 8호선 연장이 된다면 혼잡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 시간당 열차를 더 많이 운행시켜 시격을 줄이는 증차만이 혼잡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년 12월부터 “별내선이 개통에 따라 우려되는 혼잡도를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22년 12월 별내선 공사 관련 주민 민원 청취 ▶23년 4월 지하철 8호선 차량 제작 공장 방문 ▶23년 9월 별내선 건설공사 현장방문 ▶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별내선 개통 전 혼잡도 해결 위해 서울시 적극적인 대처 요구 ▶23년 11월 시정 질문을 통해 증차 관련 서울시의 계획 확인 등 혼잡도 해결을 위한 증차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5호선 하남선 연장개통으로 혼잡도 문제를 겪었던 주민들이 사전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열차 증차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4,201명의 서명을 받아 저에게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으로 인해 8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차 증차를 요청하는 청원이 원안되도록 가결되어 주민들의 의견이 서울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